

'21세기 시민사회포럼' 출범

NGO·기업·정부·학계
언론 사회적 자원 공유

시민사회와 정부·기업·학계·언론이 만남·소통·관계맺음을 격려하고 사회적 자원을 나누는 공간이 마련됐다.

시민의신문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해 지난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21세기 시민사회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 1백50여명은 "시민사회포럼이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은 물론 세계 시민사회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고 결의했다.

시민사회포럼은 NGO가 사회각계 지도자를 초청해 지혜와 경험·정보를 나누고 이해를 돕는 장, 시민운동의 다양성을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장, 세계 시민사회 속에서 한국 시민운동의 역할을 증진하고 나누는 장, 시민사회 의제를 개발·발전시켜 나가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시민의신문과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21세기 시민사회포럼 제1차 시민포럼이 시민단체와 기업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이날 박영숙 21세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시민사회의 힘을 키워야 할 때 시민사회포럼이 출발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시민사회포럼이 더욱 커지는 정부, 시장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 운동의 방향·비전을 명확히 해 시민사회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맑은 사회를 위해 감시대상과 문을 열고 대화를 하자는 취지는 시민사회가 한층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모임이 엘리트 집단화되는 것을 시민사회 스스로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시민사회포럼의 발족을 축하하며 "참여정부가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시민사회가 채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과 김영래 한국 NGO학회장이 공동대표로 선임됐고,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이형모 시민의신문 사장이 공동운영위원, 이남진 변호사와 최영태 회계사가 감사로 선출됐다.

시민사회포럼은 향후 분기별로 △NGO와 기업 △NGO와 언론 △NGO와 정부 △NGO와 학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 소모임과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창립대회에 앞서 열린 '발전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기업과 NGO의 역할'이라는 기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시민사회·기업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상호존중을 통한 신뢰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이날 발제에서 "기업과 시민사회 간 제휴 전략으로 자선적 협력, 마케팅적 협력, 경영상 협력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파트너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열린 대화를 통한 협력 매커니즘을 창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속적 영리활동을 위해 기업들이 이익의 상당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시민단체들의 기업감시활동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주 기자 endtow@ngotimes.net
L2면으로 이어짐

도전쟁 반대 선언을



기"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고 한국 국민과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 부시 대통령에 대해 한반도에 전

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목사는 또 "현 참여정부가 이끄는 정국상황이 4·19 이후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과 비슷해 노정권은 악체정권"이라고 평가하고 "대립과 분열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검 논란과 관련해서 강목사는 특검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

평 6) 집현 강에 계 안 평 적 를 4) > 언 난 황 시